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 外人 유입에도 변동성 우려 커져

코스피, 연속 하락… 2625.05 마감
外人·개인, 세부안 발표 다음날
순매수세 마감에도 코스피 약세 지속
밸류업프로그램 모멘텀 일단락 돼
일부 저PBR, ‘옥석 가리기’ 예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내린 2625.05에, 코스닥지수는 13.65포인트(1.57%) 내린 853.75에 장을 마쳤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최근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이들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주가 순자산비율(PBR)주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하자 국내 증시가 혼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0.77% 하락한 것에 이어 연속으로 0.83% 하락하면서 2625.05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

부안이 발표된 2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7조341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동일 기간 기관은 약 744억원, 개인 투자자는 약 6조7310억원씩 순매도했다.

앞서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꾸려진다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오전 중에는 외인과 기관의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코스피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회복되면서 다시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다.

26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1187

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862억원, 477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612억원)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꼽히는 현대차(299억원)도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와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때부터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향후에는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장중 외국인들은 실망 매물을 출회시키며 순매도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투심이 회복되면서 순매수세로 마감했다. 더불어 이날 개인도 순매수로 전환되며 국내 증시로 다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코스피의 약세는 지속됐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49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1654억원을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은 어제부터 일단락됐지만, 수급을 보면 여전히 저PBR 종목들에 대해 외국인 자금 유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주 등 일부 저PBR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책 기대감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부터 금융주는 장기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주주 환원 여력과 의지가 반영된 중장기 주주 환원정책의 유무와 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지난해 IPO 시장동향 분석

고금리에도 IPO기업 증가… 투자 수익률은 72% ‘급등’

12월 상장사 수익률 200% 초과
청약증거금 295兆… 전년비 42.5% ↑
수요예측 참여기관수 역대최대 규모

지난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업들이 증가한 것은 물론 공모주 투자 수익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상장 첫 날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200%에 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82개사로 전년 대비 17.1% 늘었다.

공모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8%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초대형 IPO였던 LG에너지솔루션(12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공모규모도 16% 증가한 수준이다.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급등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가	기업수	7	5	14	4	5
	공모금액	0.9	2.1	16.4	13.2	1.1
코스닥	기업수	66	65	75	66	77
	공모금액	2.3	2.4	3.3	2.5	2.2
합계	기업수	73	70	89	70	82
	공모금액	3.2	4.5	19.7	15.6	3.3

주 1) 스펙, 리츠, 코넥스 상장, 재상장, 코스피 이전상장, 주식이전 제외, 2) 상장시점 기준 /금융감독원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및 증가 수익률은 각각 평균 82%, 72%로 전년 30%, 28% 대비 크게 개선됐다. 특히 IPO시장 호황으로 12월 상장사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월 IPO 6건의 시초가, 상장일 증가수익률(평균)은 200%를 초과했다. 청약경쟁률은 934대 1로 전년 775대

1보다 크게 올라갔다.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총 295조 원으로 전년 초대형 IPO건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42.5%나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100~500억원 규모의 중소형 IPO가 75.6%로 주를 이뤘다. 1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대형 IPO는 ▲두산로보틱

스(4212억원) ▲에코프로머티(4193억) ▲DS단석(1220억원) ▲과두(1938억원) 등 4곳이다. 1조원 이상의 초대형 IPO는 없었다.

수요예측도 흥행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수는 1507개사로 전년 대비 54.4%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 가운데 운용사(펀드)가 가장 많이 늘었고, 외국인 증가율도 높았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925대 1로 전년 대비 10.6% 높아졌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경쟁률이 이전 대비 절반으로 낮아졌다.

수요예측에서는 상단초과 공모 희망 가격의 비중이 70%로 높아지면서 공모가가 밴드상단 이상(상단·상단초과)으로 확정된 비중도 74.4%로 전년 54.2% 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밴드상단확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상단초과 확정(47.6%)이 밴드상단 확정(26.8%)을 넘어섰다. 제시된 공모가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공모가가 확정된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는 0건, 하반기에는 2건에 불과했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 우선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6.4%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기관투자자 배정은 ▲운용사(펀드)(56.8%) ▲외국인(11.1%) ▲기타(투자일임업자 등, 20.6%) ▲연기금·은행 등(7.8%) 순이다. 운용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예수 확약 비율(14.8%)로 수요예측 물량(39.8%) 대비 배정 물량이 더 많았다.

금감원은 “IPO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변동 위험도 확대됐다”며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ETF 진출 15주년

ETF 산업 선두주자 성장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 운용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가 ETF 시장 진출 15주년을 맞이했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은 글로벌엑스는 이제 ETF 산업의 확실한 선두주자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엑스의 첫 ETF 상장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ETF 시장으로 전 세계 ETF 운용사들에게는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운용사

들이 끊임없이 진출을 도전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 시장에서 라이징스타로 주목받던 글로벌엑스를 인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글로벌 ETF 운용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법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현 Global X Australia)’ 등 ETF 운용사 인수 합병(M&A)을 추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인수 당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엑스의 첫 ETF 상장 15주년 기념행사 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시 8조원 수준이었던 운용자산(AUM) 규모는 현재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엑스는 최근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특화 컨설팅 제공

초고액 자산가 대상 ‘Tax센터’ 신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를 비롯해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Tax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초 삼성증권이 개점한 패밀리오피스 전담지점 ‘SNI패밀리오피스센터’의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상대로 세무 및 부동산에 특화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Tax센터장에는 초부유층 자산가들의 기업승계와 절세 플랜 전반을 총괄해온 세무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예나 센터장이 임명됐다.

센터는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최우 효율용방안이나 매입·매각 전략 수립, 절세 플랜 등 다양한 방향의 니즈를 컨설팅한다. 또한 세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인 CBRE, Knight Frank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부동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세무 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증여·상속, 부동산 관련 등 맞춤형 절세전략 제안, 국내 및 해외 조세이슈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